

商代 제2기 卜辭 ‘王+賓+’ 결합 텍스트의 구조와 내면

- 商代 문화연구를 위한 갑골문 텍스트 활용의 선행과정 -

金經一*

目 录

1. 들어가기
2. 제2기 ‘王賓’ 결합 텍스트의 구조와 내면
 - 1) ‘王+賓’ 구조의 변화
 - 2) ‘賓’의 考釋과 내면
 - 3) ‘王+賓+’ 구조의 특성
3. 맺는 말

1. 들어가기

본 논문의 기술 목적은 商代 제2기 卜辭에서 관찰되는 ‘王+賓+’ 결합 텍스트에 담겨진 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내면을 고찰하는 데 있다. 분석 과정에서 논문은 제2기 갑골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반복적인 배경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또 갑골문 시기 구분과 관련해 사용되고 있는 分組 개념과의 조화를 위해 간단한 언급을 하고 가기로 한다. 武丁의 아들 祖庚과 祖甲 시기는 商代 斷代 구분으로 제2기에 속하는데 李學勤의 分組 개념을 근거로 黃天樹는 이 시기를 出組 卜辭로 구분하며 出組 卜辭의 상한선을 武丁 이후라고 보고 있다.¹⁾ 이 견해는 제2기에 속하는 卜辭와 제1기 武丁 시기의 卜

* 祥明大學校 글로벌지역학부 中國語圈地域學專攻 教授

辭가 구분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2기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出組 卜辭를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出組 개념을 사용할 경우 기술의 통일성을 위해 武丁 시대에 존재하는 卜辭를 인용할 경우 師組와 賓組 개념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제2기에 속하는 祖庚, 祖甲 卜辭 중에는 行組 복사도 존재하기 때문에²⁾ 이 시기의 卜辭를 出組 卜辭로 지칭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分組 개념은 개별 卜辭들과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에 이 논문의 탐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은 武丁 시대와 구별되는 제2기의 卜辭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편리상 分組 개념이 아닌 分期 개념을 사용하려 한다.

‘王+賓’ 구조의 卜辭는 제1기부터 여러 시기에서 관찰된다. 그 중에서 본 논문은 제2기에 새롭게 변환되고 있는 ‘王+賓’+ ‘텍스트의 상황을 제례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게 된다. 이어서 ‘賓’에 대한 考釋을 진행하고 동시에 어순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토대로 ‘賓’의 V1 동사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賓’+ ‘구조에서 등장하는 賓語(목적어)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며 이어지는 또 다른 동사 V2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제2기 卜辭에서 발견되고 있는 ‘王+賓V1+O+V2’ 텍스트의 구성 요건과 어순 구조

1) 갑골문의 斷代 개념은 董作賓의 五期 기준에서 출발하였다. (『殷曆譜』, 臺灣: 藝文書局, 1975 참조) 하지만 1981년 李學勤은 갑골문의 발굴 장소와 貞人의 문자 특성 등을 토대로 斷代 분석의 심화를 시도하게 된다. (『小屯南地甲骨與甲骨分期』 『文物』 第5期, 1981 참조) 그후 北京大學 黃天樹는 貞人들의 書刻 특성을 분류하며 보다 세밀한 시기 구분을 진행했으며 제2기 卜辭들의 대부분을 出組로 명명했다.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 北京大 博士學位論文, 臺灣: 文津出版社, 1991, 68-77쪽 이후 참조) 특히 黃天樹의 분류는 貞人의 계보 연구 등 商代 文化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려는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董作賓의 기준으로 구분했던 시기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歷組 卜辭와 관련한 쟁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董作賓의 斷代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제2기 갑골문 시대에 대해서는 뚜렷한 異見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본 논문이 사용하는 제2기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連劭名, 殷墟卜辭中的王賓職 「殷墟卜辭中的王賓職」 『北京教育學院學報』, 25卷 4期, 2011, 08, 2쪽

의 내면에 담긴 문화적 심층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논문이 제2기의 '王+賓+' 텍스트를 대상으로 정리와 분석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제1기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소량만 존재하던 '王賓' 어휘가 이전에는 없던 독특한 구문형태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2기에 해당되는 때에 처음 나타나고 또 이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물론 제2기에도 제1기 때 보이던 일반적인 '王賓' 어휘가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제1기 때의 형태로 이 논문에서 살펴려고 하는 '王+賓V1+O+V2'의 특정 구조의 변화 상황과 다르므로 논문 분석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제2기는 제례를 비롯한 문화 변혁이 일어나던 시기로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商代 갑골문 卜辭의 많은 부분은 당시 제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제례는 제1기 때의 武丁이 죽고³⁾ 등장한 제2기 祖甲 때에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섯 개의 제사로 구성된 五種祭祀, 즉 周祭⁴⁾의 등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제2기 祖甲 시기에 이전 즉 武丁 때 사용되던 '一月'의 명칭 대신 '正月'의 표현이 최초로 사용되었음을 밝히는 논문도 발표⁵⁾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제2기에 문화적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참고로 제시한다.)되는 등 제2기의 제례 문화 변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武丁 시대의 수많은 제례 중 다섯 개의 제사로 구성된 五種祭祀, 앞서 언급한 周祭와 관련해

3) 武丁의 아들은 祖庚과 祖甲이었다. 그러나 祖庚의 시대는 매우 짧았고 아우인 祖甲이 대대적인 제례개혁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관계로 흔히 祖甲의 이름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해할만한 연구가 있어 언급하면, 黃國輝의 「再論武丁卜辭中的祖庚問題」 논문에서 祖庚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전체 논문 제목에서 보듯이 武丁 卜辭 속의 祖庚은 당연히 武丁이 죽고 난 뒤에 제2기 때의 武丁의 아들 祖庚과 구분된다. 武丁 卜辭 속의 祖庚은 廟號의 干支가 庚인 武丁 이전의 조상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黃國輝는 구체적으로 南庚으로 보고 있다. (『古代文明』 第6卷 第1期, 2012, 26쪽)

4) 갑골문을 근거로 曆法을 연구하는 常玉之는 五種祭祀가 순환을 이루며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周祭로 표현하고 있으나 동일한 내용이다. (『商代周祭制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참조)

5) 莫伯峰, 「殷商祖甲時代曆法改革的時期」, 『中國史研究』 2017, 第2期, 53-54쪽

서는 필자도 이미 세 편의 논문을 통해 다룬 바 있다.⁶⁾(다섯 개의 제사 종류는 기술의 편리함을 위해 ‘2.3 ‘王+賓+’ 구조의 특성’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이렇듯 제2기 갑골문에서는 제례 변혁과 관련한 여러 문화적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王+賓+’의 결합 구조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CNKI 등 자료를 통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갑골문 연구에서 ‘王+賓+’ 구조의 卜辭를 텍스트로 삼아 따로 떼어 살핀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제2기 갑골문의 특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논문 작성의 의미를 마련할 수 있고 기존 연구가 없다는 확인을 통해 연구의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여기서 ‘들어가기’의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학계의 흐름과 관련해 본 논문의 분석 태도에 대해 잠시 기술하기로 한다. 필자는 갑골문의 글꼴들에 대한 고문자학적 考釋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련 卜辭들을 정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商 왕실에 의해 형성되어 온 제례, 종교, 정치,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동양문화의 원형(archetype)⁷⁾을 추적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갑골문으로 파악할 수 있

6) 필자는 商代 갑골문을 연구하면서 「甲骨文을 통한 殷代 多神觀의 변화 연구」(필자, 『中語中文學』 제17집, 1995)를 시작으로 「김경일, ‘五種 祭祀’ 관련 卜辭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위한 ‘出組’ 卜辭의 분류」, 『어문학연구』 제15호, 2004), 「殷代 ‘出組’ 五種祭祀 관련 갑골문 卜辭를 통한 유교 조상숭배 문화의 기원 연구」(김경일, 『中語中文學』 제41집)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제2기의 ‘出組’ 갑골문에서 총 274개의 ‘五種祭祀’ 텍스트를 수집 분석했다. 274개의 숫자는 ‘五種祭祀’를 최초로 발견했던 董作賓, 그리고 그의 발견을 확대 연구했던 常玉之가 사용했던 卜辭 숫자 140여 개(『商代周祭制度』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참조)를 넘어선 것이었다. 常玉之는 자신이 선별한 것만 사용했을 수도 있으나 저서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7) 필자가 동양문화의 초기 형태 파악을 위해 진행하는 갑골문 글꼴과 卜辭에 대한 분석은 신화학자 옹의 연구에서도 도움을 얻고 있다. 古代 문화의 實錄인 갑골문을 통해 당시 사회의 내면이나 기원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는 갑골문 내용을 神話素(mythologem)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문화적 원형(archetype)을 투사(projection)하고 있다는 착안에서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중국학자들이 중국의 후대문헌을 근거로 논지를 전개하는 방법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엄밀하게 갑골문 텍스트만을 활용해 분

는 商代의 문화가 周代로 계승되어 왔고 이 줄기를 통해 동양문화의 原形이 형성되었다. 동양문화의 초기 원형(archetype)을 갑골문으로부터 연결 지을 수 있는 태도는 胡厚宣⁸⁾ 등이 갑골문을 이용하여 商代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통찰을 제시하면서 그 당위성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갑골문 속의 특정 텍스트를 근거로 문화적 재해석을 시도하고 중국문화의 근원성을 심화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역사 자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확보하려는 중국 학계의 흐름도 감지되는 등 갑골문의 해석이 학술 영역 외로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⁹⁾)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갑골문 텍스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고대문화에 대한 연구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필자는 향후 갑골문을 근거로 商代 제례문화를 포괄적으로 기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본 논문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술 과정에서 있게 될 텍스트에 대한 문화적인 해석은 관련 갑골문을 근거로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진행하려 한다. 아울러 논문 진행 과정에서 후대 문헌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이해를 최대한 갑골문 텍스트의 영역 안에서만 진행하려 한다. 또한 논문 편목을 고려하여 동일한 내용의 경우 분석에 가장 적합한 卜辭들을 선별 인용하려 한다.

석을 하고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착안을 필자는 C. G. Jung의 연구(「On the Nature of the Psyche」 『신화와 역사』,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79쪽 내용) 등을 통해 얻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8) 『甲骨學商史論叢初集 上·下』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2002.

9) 唐際根, 荊志淳, 「殷墟考古九十年回眸: 從‘大邑商’到世界文化遺產」, 『考古』 10期, 02. 인터넷판, (中國社會科學院古代史研究所, 2019,

http://lishisuo.cssn.cn/ddyj/ddyj_xqsyjs/xq_zxcg/201902/t20190228_4839615.shtml 참조

2. 제2기 ‘王賓’ 결합 텍스트의 구조와 내면

商代 갑골문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卜辭에는 占卜 진행의 편리, 특히 ‘一事多卜’에서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형성된 다양한 어휘 조합이 존재한다. 생략이나 결합의 구조로 만든 텍스트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王+賓+’의 결합은 단순한 편리함만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조적 결합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제례문화의 특성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단계별 분석을 통해 이들의 내면을 좀더 정밀하게 다루어 보기로 한다.

1) ‘王+賓’ 구조의 변화



그림 1
제2기 王賓
슴22716

제례와 관련된 갑골문 卜辭의 경우 제1기 武丁 때에는 ‘干支+貞人+제사 명칭+제사 대상’ 등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였다. 이는 張玉金이 문장 구조의 특성을 ‘王賓+神名+祭名’으로 표현한 내용¹⁰⁾과 동일하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제2기에 들어서면서 ‘干支+貞人+王+賓+조상신+五種祭祀 명칭’의 새로운 구조가 등장한다. 즉 貞人 뒤 부분에 ‘王+賓+조상신+五種祭祀 명칭’이 제1기 때의 단순한 제사명칭과 제사대상을 대체하고 있다. 바로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될 ‘王+賓’의 구조(참고를 위해 자형이 비교적 뚜렷한 王賓의 갑골문 원문을 그림 1로 첨부한다.)가 등장하는 시점이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제1기 武丁 때의 ‘王+賓’ 구조 텍스트는 약 5개 정도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은 아닌 만큼 참고를 위해 각주로 출처만을 소개하기로 한다.¹¹⁾ 어순적인 측면에서 보면 ‘王+賓+조상신+五種祭祀 명칭’ 구조는 갑골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S+V+O’의 어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10) 張玉金, 「論賓字句的句法結構」, 『古漢語研究』, 1993, 7, 2쪽

11) ‘슴1248正’에 2개, ‘슴1248反’에 2개, ‘슴1540’에 1개, ‘슴18175’ 총 5개 텍스트.

구조는 갑골문에서 흔한 구조이기에 특별한 주목을 끌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갑골문 'S+V+O'의 구조에서 賓語(목적어)에 해당하는 'O'는 때로 O1, O2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王+賓'이 동반하는 'O'는 단 하나로 한정되며 'O'의 성격 또한 특별하게 선별된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제 이와 관련한 설명을 진행하기로 한다. 설명은 '王+賓'의 구조적 설명에 앞서 당시 제례문화의 특성을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우선 여기서는 賓이 출현하게 되는 제례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고문자학적인 측면에서의 考釋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3 '王+賓+' 구조의 특성"에서 바로 위에서 언급한 "동반하는 'O'는 단 하나로 한정되며 'O'의 성격 또한 특별하게 선별된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즉 텍스트의 어법적 구조의 특성과 이어지는 賓語(목적어)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王+賓+' 텍스트의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商 왕실 제례의 진행은 제1기 武丁 때는 일반적으로 占卜을 진행한 貞人 또는 巫가 주로 맡아왔다. 당시 武丁의 권력이 강력하기는 했으나 조상신 또는 자연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 직접 占卜을 진행하거나 제례 집행을 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제1기 때의 일반적 텍스트 구조인 '干支+貞人+제사 명칭+제사 대상'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王'이 어떤 행위의 주체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원시 종교 사회에서의 왕과 貞人の 위상이 비교적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다음의 제1기 갑골문은 왕의 역할이 주술적 부분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甲申卜, 殼貞: 婦好媿, 嘉? 王占曰, 其惟丁媿, 嘉, 其惟庚媿, 弘吉. 三旬又
 一日甲寅媿, 不嘉, 惟女. (合14002正) 갑신일에 卜을 하면
 서¹²⁾ 貞人 殼이 묻는다. 婦好가 해산을 하려는데 기쁜 일일까? 왕이 직

12) 卜은 갑골문 卜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자이다. 글꼴은 불이 붙은 썩 덩어리를 鑽鑿에 밀착시킬 때 뼈의 반대쪽 표면이 쪼개지면서 형성되는 龜裂紋의 상형이다.

점 점괘를 보며 판단한다. 干支로 丁日에 분만을 하게 되면 기쁜 일이 될 것이다. 또는 庚日에 분만을 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삼십일과 하루가 지난 甲寅일에 분만을 할 것인데 경사롭지 못할 것이다. 오직 딸일 것이다.

위 텍스트는 ‘干支+ 貞人+ 命辭+ 驗辭’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武丁 시대를 대표하는 貞人 殼이 占卜을 진행하고 있고 이어서 왕, 즉 武丁이 점괘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占卜문화에서 武丁의 역할이 종속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괘 해설 역시 매우 적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王占曰’의 표현이 제1기 갑골문 卜辭 중에서 단지 몇 개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라는 점에 유의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왕인 武丁이 당시의 제례 문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갑골문 내용을 보면 왕에 비해 巫나 貞인이 상대적으로 막강한 종교적 위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卜辭에는 ‘巫曰 (합5648, 5649)’ 등의 표현이 보인다. 이는 武丁이 행한 ‘王占曰’의 행위와 구분된다. 즉, ‘王占曰’은 왕이 점괘를 풀이하며 말을 하고 있지만 ‘巫曰’의 경우는 주술사 巫가 직접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¹³⁾ 商代에 巫는 제사 대상인 魂靈과 직접 접하며 제사를 진행하는 인물이었기에 그 神威는 절대적이었다¹⁴⁾

후대 문헌인 『周禮』, 「春官」의 ‘作龜’ 과정이 바로 卜의 과정이 된다. 卜의 과정은 占卜 과정인 ‘命龜-거북 뼈에 점을 칠 사항을 묻는 과정’과 하나로 묶어 번역해야 하는 핵심 행위가 된다.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어지는 부분이 ‘命辭’ 내용들임을 고려하여 ‘卜을 하면서 묻는다’의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13) “巫曰”은 주술사 巫가 자신의 말을 하고 있음을 표현한다는 해석이 갑골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홍콩의 饒宗頤는 “巫曰”을 “筮曰”의 가차로 보아 ‘산대 가지의 점괘에 근거해 말하다’로 보고 있다. (『甲骨文通檢』 總4冊, 香港: 中文大學, 1989-1995, 40-41쪽) 주류의 해석은 아니나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이므로 참고로 남겨둔다.

14) 巫와 관련한 연구는 일본의 林巳奈夫(『中國古代の神巫』, 東方學報, 第38期, 1967, 211-218쪽)와 饒宗頤(『甲骨文通檢』 總4冊, 香港: 中文大學, 1989-1995, 41-42쪽)의 고찰이 대표적이며 林政華(『甲骨文成語集釋』, 『文物與考古研究』, 第1輯, 63-64쪽) 등도 참고할 수 있다. 후대 문헌의 경우 『周禮』 「春官-男巫」 “男巫, 掌望祀…以除疾病. -남자 무당은 野外 제사인 望을 주관하고, …질병 등을 제거한다.” 『周禮』 「春官-女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텍스트가 전하는 문화적 맥락은 의미 차이가 크다 하겠다. 본 논문의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曰'와 관련한 설명은 여기서 그치기로 한다. 여기서 필자가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정치적 측면에서 제1기 武丁 시대에는 왕이 神威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로부터 상당 수준 분리되어 있었으며 나뉠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武丁 왕이 직접 제례를 집행한 사례는 武丁 때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특기해 둘 만하다.

하지만 제2기 祖甲이 집권하고 다섯 개의 제사만으로 조상제사를 제한하는 五種祭祀를 진행하면서 제례 집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그는 제1기 때에 절대적인 神威에 기대어 魂靈과 직접 접하며 제사를 진행하던 巫의 존재를 없애버렸다. 때문에 제2기 갑골문에서 巫는 사라지고(제2기에는 非血族 조상신의 소멸과 함께 巫와 관련한 텍스트 역시 모두 사라진다. 그 진행과정에 따른 정치 종교문화적 변혁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1. 들어가기의 각주 3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논문에서 관련 卜辭들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상세히 다루었기에 여기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 그 공백의 자리에 왕이 들어서게 된다. 즉, 왕이 된 祖甲은 직접 조상신을 맞아들이며 제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집약된 표현이 바로 '王+賓' 구조이다. 이는 당시 종교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파격에 가까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두 卜辭를 보자.

乙亥卜, 尹貞: 王賓大乙祭, 亡咎? (合22630)...戊卜, 王貞: 王其
賓中丁彡, 兪, 亡它? (合22855)

위 두 텍스트에 나타난 '王+賓'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王의 신분은 武丁이 아닌 제2기 祖甲임은 분명해졌으니 다음으로 賓의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巫」 “女巫, 掌歲時祓除瘴浴. 早暎則舞雩.-여자 무당은 歲時 때 악귀를 驅逐하는 제사를 관장하고 피를 바르는 제사와 목욕을 집행한다. 가뭄이 들면 비를 부르며 추는 춤 제사를 진행한다.” 등의 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

이다. 이제 이들과 관련한 고문자적인 考釋과 텍스트에서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2) ‘賓’의 考釋과 내면

갑골문에서의 賓의 기본 字形은 ‘宀+人+止’의 字素들을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으며(그림 1 참조) 때로 ‘止’가 생략된 異體字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갑골학자들은 모두 이 글꼴을 賓으로 隸定하고 있으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학계에서 이 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賓으로 隸定된 글꼴의 의미에 대해 처음 주목한 학자는 일본 학자 島邦男¹⁵⁾이다. 그는 당시 제2기의 개념을 알지 못했으나 卜辭에서 賓 뒤에 특정한 몇 개의 제사 동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처음에 그는 賓이 뒤에 이어지는 제사 동사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賓 뒤에 이어지는 제2기 때의 선별된 조상신(잠시 뒤에 상술하기로 한다.)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는 못했기에 명확한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문맥에 근거해 만들어진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있다. 그 후 ‘賓’을 일반적으로 제례와 관련한 동사로 보는 견해는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갑골문을 통해 중국 商代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던 胡厚宣은 賓을 ‘禮者所以饋鬼神(예를 집행하는 이가 귀신을 인도하는 것)’의 『禮運』 기록과 郭沫若의 견해들을 근거로 ‘饋’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¹⁶⁾ 陳夢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을 보였다.¹⁷⁾ 胡厚宣은 자신의 논문에서 字形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문맥과 관련 문헌들을 연결해 ‘饋’禮者所以饋鬼神(예를 집행하는 이가 귀신을 인도하는 것)’의 견해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賓 글꼴 중 宀, 人, 止의

15) 『殷墟卜辭研究』에 상세한 내용이 있다. (東京: 鼎文書局, 1975, 311-314쪽 참조) 또한 于省吾의 『甲骨文字詁林』(北京: 中華書局, 1996, 2028쪽)에도 연구들이 소개되어 있다.

16) 「殷代之天神崇拜」 『甲骨文史論叢初輯-上』 臺灣: 大同書局, 1972, 301-302쪽

17)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1988, 573-574쪽

字素, 그리고 이어지는 선별된 조상신을 근거로 의미를 구체화시켜 보면 조상신의 魂靈을 人間界로 맞아들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례를 집행하는 실내에서 조상신에게 진행되는 제례가 賓의 자형 내면에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발동작을 의미하는 止 字素의 첨가는 조상신을 擬人化해서 魂靈이 들어오고 있음을 암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즉 이 일련의 과정이 王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王+賓' 구조의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교학자로 갑골학계에서 인정받았던 프랑스 신부 雷煥章은 賓이 당시 여러 제례에서 매우 주동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 설명하면서 卜辭 속 부정사와 賓의 구조 분석을 근거로 賓이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¹⁸⁾ 이는 글꼴의 분석이나 '王+賓' 텍스트의 전체 흐름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여기서 앞의 '슴22630'과 '슴22855'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잠시 정리해 보자. 賓은 제례의 한 절차이다. 앞선 제례 문화에서는 제례 현장에 조상의 魂靈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魂靈을 부르는 등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없이 제례 명칭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제2기 때 賓의 등장은 조상신 등장의 당위성이 전제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이제 조상 魂靈의 등장여부는 王에 의한 賓의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王+人+止'의 字素는 실내로 걸어들어오는 魂靈의 擬人化 과정을 보여주는 신화 소처럼도 읽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위에서 번역 없이 인용했던 '乙亥卜, 尹貞: 王賓大乙祭, 亡咎?' (슴22630)은 '올해일에 卜을 하면서 貞人 尹이 묻는다. 왕이 직접 조상신 大乙을 맞아들이기 위해 육류를 토막 내어 제물로 하는 祭의 제사¹⁹⁾를 진행하면 잘못이 없을까?'로 번역될 수 있다.

18) 「兩個不同類別的否定詞“不”和“弗”与甲骨文中的“賓”字」 『甲骨文發現一百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1898-1998』, 臺灣師範大學國文系中研院歷史語言研究所, 文史哲, 55-57쪽

19) 祭는 흔히 제사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후대 引伸義이며 제2기 五種祭祀 때에는 곡물과 대비, 육류를 토막 내어 제단에 올려놓는 제사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戊卜, 王貞: 王其賓中丁彡, 兪, 亡它?’ (합22855)’는 ‘어느 ...술일에卜을 하면서 왕이 묻는다. 왕이 직접 조상신 中丁을 맞아들이기 위해 복을 치면서彡의 제사를 진행하고 관악기를 사용하는 兪의 제사를 진행하면 잘못이 없을 까?’로 번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번역은 후대문헌인 『左傳』, 『禮記』 등에서 賓을 賓客으로 보는 견해에 근거로 제공될 수도 있다. 또 『說文解字』에서 ‘敬也. 迎也.’의 풀이 역시 제례에서의 조심스런 분위기와 魂靈을 맞아들이는 과정을 전하고 있다 하겠다.

賓의 字素 분석과 관련 텍스트를 근거로 문자의 제례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파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갑골문 기록을 근거로 賓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宀의 字素를 통해 賓의 진행 장소가 실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어지는 조상신의 연결을 통해 賓이 동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그런데 갑골문에는 賓이 건축되는 구조물로 명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 다음의 두 갑골문을 보자.

庚申卜, 覈貞: 作賓? (합32) 경신일에卜을 하면서 정인 覈이 묻는다. 賓을 지을까?

貞: 我勿作賓? (합15191) 묻는다. 내가 賓을 짓지 말아야 할까?

갑골문에서 賓이 제례 동사인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賓이 作的 賓語(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데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조금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고대문화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李志剛은 갑골문의 이 ‘作賓’을 고대 제례에서 제후 등이 賓客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로 풀고 있다.²⁰⁾ 이러한 해석은 갑골문에서의 賓의 의미와는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作賓’ 자체는 구조물 賓을 건축한다는 의미로 푸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실 李志剛의 견해는 갑골문의 관련 내용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후대의 引伸義에 근거한 해석일 것으로 보

20) 李志剛, 「以神爲賓: 商周喪祭禮制中人神關係的新考察」, 『史學月刊』, 第4期, 2014, 7쪽

이는데 이와 관련한 우려를 앞서 '1. 들어가기'에서 표시한 바 있다. 사실 갑골문에서 '作'은 '作邑于麓?(합13505正) 읍을麓 지역에 조성할까?'의 卜辭에서 보듯이 토목 사업에 사용되는 매우 제한적 의미를 지닌 글자이다. 때문에 후대의 단순히 목적어를 동반하는 동사(及物動詞)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반론은 여기서 그치기로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위에 인용한 '합32' '합15191'의 '作賓' 과정은 갑골문에 2개가 있는데(현재까지의 확인으로) 이들은 모두 제1기 즉 武丁 때에 占卜 내용이다. 반면에 제2기 때에는 '作賓' 즉 賓 건축 관련 갑골문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2기 祖甲은 제1기 아버지 武丁 시대에 지어진 賓의 건축물 안에서 賓이라는 제례 과정을 진행하면서 통치를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의 갑골문 기록만으로는 賓이라는 이 건축물의 소재지를 특정하지는 못한다는 부분이다. 특히 商 왕실의 소재지 즉, 지금의 河南省 安陽의 殷墟에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만일 賓의 행위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추측도 가능하겠으나 제2기 때의 갑골문에는 賓이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의 내용을 보자.

甲子卜, 行貞: 王賓...²¹, 祭? 在...²².... (합24310) 갑 자 일 에
卜을 하면서 貞人 行이 묻는다. 왕이 (조상신...)을 맞아들이며
²¹ 제례와 고기를 사용하는 祭의 제사를 진행할까? ...와/과
²²에서.²²⁾

위 갑골문 역시 제2기 卜辭로 '王賓'이 나타나고 다음에 제례 대상이 보이는 않으나 이어지는 제사 동사들이 연속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어렵지 않

21) 字形 중 示의 字素와 대바구니 其의 字素는 商代 제례 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隸定이 없는 상태라 글꼴 원형을 제시한다.

22) 갑골문 卜辭에서 命辭에 바로 介詞 在가 이어지는 경우 특정 지역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진술구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즉 전반부는 다음에 소개하는 전형적인 ‘王賓’ 텍스트와 유사하다.

乙卯卜, 卽貞: 王賓報乙祭, 亡咎? (合22692)을묘일에 卜을 하면서 貞人 卽이 묻는다. 왕이 직접 조상신 報乙을 맞아들이며 고기를 사용하는 祭의 제사를 진행하면 잘못이 없을까?

‘干支+ 貞人+ 王賓+ 祭사 대상+ 祭사 명칭’의 텍스트 구조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만으로는 ‘王賓’이 商 왕실 소재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合24310’에는 介詞 在가 등장하고 있다. 갑골문 텍스트에서 介詞 在 뒤에는 반드시 지명 또는 시간이 따르는데 이들 지명은 전쟁, 제례, 출산 등의 특정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때 “在... 龔...”의 내용은 진행되고 있는 賓 제례 장소가 商 왕실 소재지가 아닌 외지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龔’의 의미를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다음의 제2기 갑골문을 참고로 지명임을 짐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辛丑卜, 行貞: 今夕, 亡咎? 在師²³⁾龔卜. (合24314)신축일에 卜을 하면서 貞人 行이 묻는다. 오늘 저녁에 잘못되지 않을까? 龔에서 주둔하며 卜을 한다.

위 ‘在師龔卜.’는 命辭에 이어지는 驗辭(앞에 前辭에 卜이 이미 존재)로 앞의 ‘合24310’의 ‘在... 龔...’ 부분이 이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즉 제2기 갑골문에 자주 등장하는 ‘師龔’ 표현의 일부분으로 여겨 동일한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在師龔卜’의 경우, ‘龔이/가 占卜을 진행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

23) 師는 卜辭에서 도읍을 의미하는 都의 의미와 出師 또는 巡行 과정에서의 주둔을 의미하는 寢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卜辭 중 ‘于師歸’(合23705)의 구문에 대해서 連劭名은 歸를 地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在師龔卜’(合24314) 구문 역시 동일한 구조로 龔를 地名으로 師를 동사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번역은 ‘주둔하다’로 한다. (連劭名, 「商代的師」, 『考古』, 1期, 2014, 72-74쪽 참조)

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동일 장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해도 장소로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정리를 해 보면 제2기 '王+賓' 구조에서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賓은 건축물로 지명 '甃'을/를 근거로 몇 군데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賓의 위치를 商 왕실의 소재지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賓의 행위 영역이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제1기 때에 건축된 것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건축물 안에서 王 祖甲은 魂靈을 부르는 제례를 주도하며 새로운 종교정치적 힘을 구축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王+賓+' 구조의 특성

이번에는 '王+賓' 구조 텍스트의 내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賓' 뒤에 이어지는 대상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2.1 '王+賓' 구조의 변화'에서 언급했듯이 '王+賓+ 조상신+ 五種祭祀 명칭' 구조는 제2기 갑골문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어순만으로 보면 'S+ V1+ O+ V2'의 구조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자의 사용이 독특함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卜辭의 핵심 부분인 命辭에서 동사가 두 번 사용되는 경우는 갑골문에서 흔하지만 '王+賓+ 조상신+ 五種祭祀 명칭' 구조에서는 V1은 '賓'으로 고정되어 있고 V2의 五種祭祀는 覯, 祭, 嘏, 荔, 彡 다섯 개의 제사만으로 국한되고 있었다. 또 賓語(목적어)인 'O'에는 엄격하게 선별된 조상의 廟號들만이 그것도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만 자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V2로 사용되는 다섯 개의 제사 종류와 선별된 조상의 廟號를 살피기에 앞서 비교를 위해 동사가 두 개, 세 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다른 형태의 텍스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형태는 제1기 갑골문에서 흔하게 관측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을 보자.

丙申卜, 貞: 燎于河三牢, 沈三牢, 宜一牢? (合14556) 병신일에 卜을 하며 묻는다. 黃河에 우리에서 기른 소 세 마리를 태우는 제사 燎 제사를 지내

고 우리에서 기른 소 세 마리를 물에 빠뜨리는 沈 제사를 지내고 우리에
서 기른 소 한 마리를 고기를 조각내어 사용하는 宜 제사를 지낼까?

‘습14556’에서는 燎, 沈, 宜의 제사 동사 세 개가 사용되고 있고 각각의 동사 뒤에는 제물들이 賓語(목적어)로 사용되는 ‘V1+ O1+ V2+ O2+ V3+ O3’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동사 두 개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자. 마찬가지로 제1기 갑골문이다.

貞: 告既侑于上甲? (습1205) 묻는다. 조상신에게 고하는 告 제사를 마친
후 上甲에게 도움을 구하는 侑 제사를 지낼까?

위의 텍스트는 告와 侑 두 개의 제사 동사가 부사어 既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으며 賓語(목적어)를 사용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동사 뒤에 介詞 于²⁴⁾를 동반하여 텍스트내에서 賓語(목적어)가 間接賓語(간접 목적어)임을 표시하고 있다. 즉 갑골문에서는 ‘S+ V+ O’의 기본 구조²⁵⁾가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사나 賓語(목적어)의 종류는 제한되고 있지 않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제2기의 ‘王+ 賓+ 조상신+ 五種祭祀 명칭’의 ‘S+ V1+ O+ V2’의 구조 역시 갑골문의 어법 맥락 속에서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王+ 賓+’이 동반하는 O와 V2는 매우 선별되고 제한된 경우만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구

24) 갑골문 介詞 于가 동사일 수도 있다는 논란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白俊鸞의 논문이 있다. 논문을 통해 그는, 郭錫良이 「介辭‘于’的起源與發展」에서 제1기 갑골문 ‘습4630’의 命辭 ‘令犬延于京’을 들어 使役動詞 令 뒤에 동사가 없이 于가 사용되었다며 이를 介辭가 아닌 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소개하고 있다. 동사라는 주장은 갑골원판을 보지 않았기에 일어난 오류로 裘錫圭는 원판에서 犬延과 于京 사이에 글자가 누락되었음을 밝히며 介辭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甲骨卜辭語法研究應勤慎』 『殷都學刊』 2期, 2011 참조. 郭錫良의 인용은 92쪽 참조.)

25) 갑골문 어법에서 ‘S+ V+ O’ 구조를 기본형으로 보는 것이 갑골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갑골문 어법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沈培의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臺灣: 文津出版社, 1992)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갑골문의 최근까지의 어법 관련 연구를 재종합한 齊航福의 연구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殷墟甲骨文中焦點問題的初步研究』 『語文研究』 第4期, 2014, 39-45쪽 참조)

분된다. 앞서 확인했듯이 賓은 조상의 魂靈을 부르는 동사이다. 즉 '王+賓'은 갑골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S+V 구조를 이루지만 제2기 갑골문에서 賓은 언제나 독특한 특성의 賓語(목적어)를 동반하며 그 賓語(목적어) 뒤에는 선택된 V2만이 자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賓의 賓語(목적어)는 바로 제2기 때 정리된 直系 조상의 廟號들로만 제한된다. (제2기 '王+賓+' 구조를 보이면서 선별된 조상신이 오지 않는 경우는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伐, 歲 제사의 두 종류가 있다. 참고로 출처를 제시한다.²⁶⁾ 논문에서 '제한된 廟號'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먼저 제1기 武丁 시대의 제례 대상은 수 십 개에 달했다. 河, 岳, 土를 중심으로 日, 月, 星, 虹, 雲, 雷, 風 등의 자연물과 자연 현상이 제례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었다. 물론 商 왕실의 수 십 명 直系 조상신이 주요 제례 대상이었지만 王亥, 黃尹²⁷⁾ 등의 非直系 인물들도 제례 대상이 되고 있었음이 갑골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제례가 진행되는 날짜의 경우, 특정 규칙 없이 각각의 돌발적인 사안에 따라 그 때 그 때 선택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제2기에 들어서면서 제례문화는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 제례의 종류는 五種祭祀의 다섯 개로 줄어들고 제사 대상은 直系 조상신만으로 축소되는데 심지어 上帝를 의미하는 '帝'에 대한 제례와 占卜마저 폐지되고 만다.²⁸⁾ 그런가 하면 제례 날짜와 조상신의 명칭 속에 존재하는 干支를 매치시키는 독특한 구조가 등장한다. (이와 관련한 포괄적 배경 설명은 "2.1 '王+賓' 구조의 변화" 부분에서 다루었기에 중복 서술하지 않는다.) 결국 이전 武丁 때와는 전혀 다른 제례문화가 등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王+賓+'의 빈자리에 해당되는 賓語(목적어)로는 정리된 直系 조상들의 廟號만이 한정적으로 해당된다. 그럼 이제 이들 제2기 때 정리된 直系 조상의 廟

26) 伐-합22606, 歲- 이하 합22747, 합25267, 합25303.

27) 商 왕실의 直系 조상신이 아닌 존재들로 전쟁에서의 功績으로 조상 차원의 廟號를 획득한 뒤 제사 대상이 되었다. 黃尹은 학자들이 伊尹으로 隸定하기도 한다.

28) 예를 들어 제1기에서 보이던 "上帝의 신하에게 령을 내릴까? (惟帝臣令?) (합217)", "上帝의 신하에게 령을 내릴까? (惟帝臣令?) (懷897)", "上帝의 신하에게 (특정 사안의 집행)을 진행하도록 령을 내릴까? (惟帝臣令出?) (합14223)" 등의 卜辭들이 제2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號를 살펴보기로 한다. 商代 갑골문 전체를 통 털어 直系 조상의 廟號 모두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갑골문 텍스트는 발견되지 않는다. 商代 갑골문에 보이는 조상 廟號들의 연구는 王國維를 필두로 陳夢家, 董作賓, 胡厚宣, 島邦男 등 수많은 학자들의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완성되어 왔으며 사실 갑골학 研究史의 핵심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²⁹⁾ 필자 역시 이들의 파악에 긴 시간을 사용했었다. 아무튼 수많은 제례 관련 텍스트를 근거로 확보한 제2기에 조상의 廟號 다시 말해 ‘王+賓+’의 빈자리에 해당되는 賓語(목적어)에 자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30개이다.

上甲, 報乙, 報丙, 報丁, 示壬, 示癸, 大乙, 大丁, 外丙, 南壬, 大甲, 虎祖丁,
大庚, 小甲, 邕己, 大戊, 中丁, 外壬, 夔甲, 祖乙, 祖辛, 虎甲, 南庚, 祖丁,
羌甲, 般庚, 小辛, 小乙, 武丁, 祖庚

여기서 하나 언급해야 할 부분은 武丁 뒤 마지막에 위치하는 祖庚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武丁은 祖庚과 祖甲 두 아들을 두었지만 祖庚의 재위기간은 길지 않았고 동생인 祖甲이 제2기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祖庚을 해당 廟號로 분류한 이유도 있고 또 제2기 갑골문에는 祖甲이 자신의 형 祖庚을 조상신으로 여겨 제사를 진행하는 실제 텍스트가 있어³⁰⁾ 이러한 분류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우선 제2기에는 제례 날짜와 조상 廟號 속 干支를 결합하는 제례 구조를 사용하고

29) 관련 사항은 『王子信, 楊升南 主編(1999)의 甲骨學一百年史』(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09.01. 판본.)과 2017년 공개된 同 서적의 pdf 판본(이 판본에는 관련 학자들의 소감 등도 포함되어 있다.) 등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30) 제2기 卜辭에는 때로 ‘庚申卜, 行貞: 王賓兄庚翌日, 亡尤?’ (23484)-경신일에 卜을 하면서 貞人 行이 묻는다. 왕이 직접 형인 祖庚의 魂靈을 맞이하며 깃털을 사용하는 제례를 진행하면(翌을 五種祭祀로 보지 않는 학자들은 ‘영혼을 맞이하는 제례를 그 다음날에’로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각주 34) 참조.) 화가 없을까?’의 텍스트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예가 매우 드물며 이어지는 제3기, 제4기, 제5기에서는 武丁과 祖甲의 廟號가 주로 등장하며 祖庚의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개의 문자 조합인 조상 廟號의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干支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王+賓+'의 텍스트는 이러한 요소 모두를 구비하고 있게 된다. 이제 앞서 종합해본 내용 전부를 포괄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의 다음 텍스트를 보기로 한다.

丁巳卜, 尹貞: 王賓父丁, 亡尤? 在三月.(合22723) 정사일에
 卜을 하면서 貞人 尹이 묻는다. 왕이 직접 아버지 武丁의 魂靈을 맞이하
 며 북 제사인 尗 祭禮를 진행하면 화가 없을까? 삼월에.

위의 텍스트에서 命辭에 등장하는 王, 賓, 父丁, 尗은 'S+V1+O+V2'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시 갑골문의 일반적인 어순 맥락 속에서 이 질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王+賓+'이 동반하는 O에 해당하는 父丁³¹⁾은 앞서 제시한 30개의 廟號에 해당하며 尗은 五種祭祀 즉 烝, 祭, 禘, 祫, 尗 다섯 개의 제사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순의 기능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다. 즉 모두 제한된 범주의 廟號와 제사만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텍스트를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깊이 살펴보면 텍스트는 왕 祖甲이 제사 대상인 父丁의 魂靈을 賓의 제례를 통해 맞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武丁의 廟號 속 干支 丁과의 합치를 위해 干支가 일치하는 丁巳일에 占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王+賓+' 구조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텍스트에서 달라지는 것은 干支와의 조화를 위한 廟號, 그리고 다섯 개의 제사 중 하나일 뿐이다. 다시 그 예를 살펴보자.,

乙丑卜, 卽貞: 王賓唐烝日, 亡尤? 三月.(合22744) 을축일에 卜을 하면
 서 貞人 卽이 묻는다. 왕이 직접 唐³²⁾의 魂靈을 맞이하며 깃털을 사용하

31) 武丁의 아들인 祖甲이기 때문에 武丁의 廟號 대신 父丁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2) 商代 조상의 廟號 중 唐은 大乙의 별칭이다. 간지와 諡號가 일치하지 않는 듯하지만 별칭 大乙을 옆두에 두고 작성한 卜辭이다. 중국 후대 문헌이 일반적으로 일컫는 湯王의 전신이다. 텍스트는 제2기 '王+賓+' 구조와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

는 쫘의 제례를 지내는 날이다.³³⁾ 우환이 없을까?

庚申卜, 卽貞: 王賓南庚祭, 亡咎? (합23076) 경신일에 卜을 하면서 貞人
卽이 묻는다. 왕이 직접 南庚의 魂靈을 맞이하며 육류를 제단에 바치는
祭의 제례를 지내도 나쁜 일이 없을까?

앞서의 설명과 같이 ‘합22744’의 텍스트는 干支와 조상 廟號 唐이 일치하
며 五種祭祀는 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23076’ 역시 干支, 廟號, 祭 등 구
성조건이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제2기 ‘王+賓+’ 텍스트의 어법적 구조 특성과
문화적 특성의 일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관련 텍스트들도 동일한 상
황이므로 관련 예문 인용은 여기서 그치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
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癸未卜, ...貞: 翌甲申乞酉, 芻自上甲衣至于毓, 亡...? (합22651)

‘王+賓+’의 구조에서 賓의 賓語인 廟號는 거의 모두 하나의 조상에 대해
하나씩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自上甲衣至于毓’의
구조, 즉 ‘自上甲+衣 제사(바로 뒤의 각주 34) 참조)+ 至于+毓’의 구조를
사용해 商 왕실의 모든 直系 조상 魂靈을 제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들
이 동시에 등장한다. 즉 ‘王+賓+’의 구조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동일한 시
기에 등장하는 표현이라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텍스트의 숫자는 매
우 적으나 商 왕실의 첫 번째 조상신 上甲을 시작으로 나머지 29명의 조상신
모두를 제례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제례 대상

33) 쫘을 五種祭祀로 보지 않는 학자들은 ‘영혼을 맞이하는 제례를 그 다음날에’로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본 논문은 五種祭祀를 처음 발견한 董作賓(董作賓 『殷曆譜』 臺灣 藝文
1975)의 연구와 이를 발전시킨 池田末利(『五祀考』 『東方宗教』, 17號, 日本道教學會,
1961, 19-36쪽) 그리고 五種祭祀 관련 卜辭를 근거로 商代의 曆法을 재구성해낸 常玉之
(『商代周祭制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참조), 필자(『유교문화의 原形 탐색
을 위한 ‘出組’ 五種祭祀’ 관련 갑골문 텍스트 연구』 『中語中文學』, 제37집, 1-28쪽 참
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림 2
自上甲
合22646

을 干支에 맞는 廟號가 한 둘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진행되는 제례는 '王+賓+'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五種祭祀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芻 제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때 五種祭祀는 아닌 衣 제사³⁴⁾를 동반하고 있어 흥미롭다. 衣 제사는 芻 제사의 의미와 관련해 董作賓은 협력의 뜻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³⁵⁾ 아마도 여러 조상을 망라하는 상황을 고려한 듯하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보다 구체적인 텍스트는 보이지 않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어렵다. 아무튼 제2기 갑골문에서 한정된 廟號와 五種祭祀를 주로 사용하는 당시의 갑골문 구조와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어 연구 자료의 하나로 서술해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의미를 참조하여 앞에 인용한 '合22651'의 번역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4) 中國社會科學院的 常玉之는 갑골문 五種祭祀 관련 卜辭를 근거로 商代의 曆法을 재구성하면서 董作賓이 제기했던 衣祭 개념을 사용했다. (『商代周祭制度』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참조) 裘錫圭는 갑골문 '衣'와 관련해 1990년 일찍이 '殷'의 가차자로 보았던 李學勤의 考釋에 대해 '卒'로 예정하고 '遂'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字形을 衣a와 衣b로 나누어 구분하면서 字形 隸定을 '衣'로 하는 것이 틀림은 없으나(從字形上看沒有問題應該釋爲'衣', 10쪽) 의미상 '卒'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殷墟卜辭中的'卒'和'律』, 『中原文物』, 1990, 第3期 참조) 이와 관련해 黃彭健는 갑골문 卜辭 전체 분석을 근거로 두 편의 연속된 논문을 통해 '衣'가 제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論衣禮與商代周祭制度(上, 下)』, 『中國史研究』, 2002, 1期, 2期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常玉之의 연구가 제2기 卜辭를 중심으로 曆法을 재구성해 다른 학자들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9년 常玉之는 五種祭祀에 근거한 曆法과 관련해 발표를 지속시키고 있는데 이 논문은 衣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衣 제례는 五種祭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 『中國古代的干支, 十進位制和十二進位制紀時』, 『中原文化研究』, 2019, 3期, 17쪽) 이와 아울러 裘錫圭의 견해는 주로 제1기의 賓組와 제5기의 黃組 卜辭들을 선별하여 衣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반면에 黃彭健는 商代 전반을 대상으로 얻은 연구결과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필자는 해당 연구가 충분히 깊어지기까지 본 논문에서는 '衣'를 제례로 해석하기로 한다.

35)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1858쪽

계미일에 卜을 하면서 ... 묻는다. 다음날 갑신일에 다양한 사항의 순로로
 움을 구하며 술³⁶⁾을 사용할 때 조상신 上甲에게 (五種祭祀 중 네 개의
 제사를 연합으로 진행하는) 荔 제사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후대 조상신
 모두에게 종합 제례 飗를 지내면 (어려움이) 없을까?

3. 맺는 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商代 제2기 卜辭에서 독특하게 관찰되는 ‘王+賓’+‘결합 텍스트에 함축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내면을 고찰했다. 분석은 먼저 제2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王+賓’+‘결합 텍스트의 출현 배경을 제례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賓’에 대한 考釋을 진행했으며 ‘賓’의 V1 동사로서의 역할을 확인했다. 또 이어서 제2기 卜辭에서 발견되고 있는 ‘王+賓 V1+O+V2’ 텍스트의 구성 요건과 어순 구조의 내면에 담긴 문화적 심층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王賓’ 결합 텍스트의 구조와 내면 부분에서 ‘王’+‘賓’ 구조의 출현 시기를 살펴보았다. ‘王賓’ 결합 텍스트 출현의 배경으로 제2기 祖甲이 집권하고 다섯 개의 제사만으로 조상제사를 제한하는 五種祭祀가 만들어지면서 제례 집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 종교적 위상이 제고되는 상황도 살펴보았다. ‘賓’에 대한 考釋을 통해 갑골문 賓의 기본 글꼴은 ‘宀+人+止’의 字素들로 이들은 조상신의 魂靈을 人間界로 맞아들여 실내에서 집행하는 제례를 상징하고 있음을 밝혀두었다. 특히 止 字素의 첨가는 조상신을 擬人化해서 魂靈이 들어오

36) 인용한 卜辭 (합22651)에서 酉로 隸定한 갑골문 글꼴 원형은 𠄎이다. 갑골문 글꼴을 酉로 隸定하는 사람은 李孝定, 饒宗頤이다. 孫詒讓과 葉玉森은 耐로 隸定하고 있다. 반면에 于省吾와 陳漢平은 𠄎를 酉로 보는 의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卜辭 이해를 전제로 하면 모두 발효액과 연관되어 있음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 ‘술을 사용하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전체 학자들의 논의는 모두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北京: 中華書局, 1996, 2702-2707쪽)에서 참고할 수 있다.)

고 있음을 암시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상의 분석들을 근거로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부분인 '王+賓+ 조상신+ 五種祭祀 명칭' 구조는 제2기 갑골문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어순만으로 보면 'S+ V1+ O+ V2'의 구조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王+賓+ 조상신+ 五種祭祀 명칭'의 구조이며 V1은 '賓'으로 고정되어 있고 V2의 五種祭祀는 翌, 祭, 禘, 粦, 彡 다섯 개의 제사만으로 국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賓語(목적어)인 'O'에는 엄격하게 선별된 조상의 廟號들만이 그것도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만 자리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 필자가 논문의 부제로 '商代 문화연구를 위한 갑골문 텍스트 활용의 선행과정'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논문은 향후 商代 문화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저술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논문의 진행과정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商代 문화의 재구축 과정에서 자의적이거나 단편적인 갑골문 인용이 관찰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중국학자들의 관점으로 작성된 저술이 아닌 갑골문 그 자체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商代 문화 저술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래서 필요한 갑골문의 텍스트를 수집하고 분석해 두려는 한 단계로서의 작업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주술적,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서울: 까치글방, 1998.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신화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동양신화-신의 가면II』, 서울: 까치글방, 1999.
-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원시신화-신의 가면I』, 서울: 까치글방, 2003.
- 질베르 뒤랑, 유평근 옮김,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서울: 살림, 1998.
- 艾蘭(Sarah Allan), 汪濤 譯, 《龜之迷-Myth, Art, and Cosmos in Early China》,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2.
-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臺灣: 大通書局, 1971.
- 方法斂 著 邗曉娜 譯, 〈中國古代文字考〉, 《甲骨文與殷商史》 新三輯, 2018, 12. 인터넷판, (中國社會科學院古代史研究所, http://lishisuo.cssn.cn/ddyj/ddyj_xqsyjs/xq_jbwx/201812/t20181228_4803496.shtml)
- 方述鑫, 〈試論帝乙、帝辛卜辭〉 《殷都學刊》 30期, 1992, 12.
- 郭沫若等, 《甲骨文合集》,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1982.
- 何幼琦, 〈帝乙、帝辛紀年和征夷方的年代〉 《殷都學刊》 01期, 1990.
- 何幼琦, 〈試論帝乙、帝辛紀年〉 《殷都學刊》 02期, 1986, 04.
- 胡厚宣,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下》,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2002.
- 黃天樹, 《殷虛王卜辭的分類與斷代》 北京大 博士學位論文, 臺灣: 文津出版社, 1991.
- 李愛輝, 〈甲骨序辭, 兆辭釋讀中存在的幾個問題〉, 《文獻》 제5기, 2019, 02. 인터넷판, (中國社會科學院古代史研究所, http://lishisuo.cssn.cn/ddyj/ddyj_xqsyjs/xq_zxcg/201902/t20190228_4839610.shtml)
- 李涵; 王云庆, 〈談“昌乐骨刻文”與中國早期檔案“雛形”〉 《檔案》 優先出版, 25期 2014, 06.
-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臺灣: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2.

- 李学勤, 〈論新出現的一片征人方卜辭〉, 《殷都學刊》30期, 2005, 03.
- 劉風君, 〈中國早期文字骨刻文的釋讀方法〉《山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05期, 2012, 11. 1
- 劉堯漢, 《中國文明源頭新探》,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1993.
- 饒宗頤, 《甲骨文通檢》總4冊, 香港: 中文大學, 1989~1995.
- 沈建華, 曹錦炎, 《新編甲骨文字形總表》, 香港: 中文大學, 2001.
- 唐際根, 荊志淳, 〈殷墟考古九十年回眸: 從‘大邑商’到世界文化遺產〉, 《考古》10期, 2019, 02. 인터넷판, (中國社會科學院古代史研究所, http://lishisuo.cssn.cn/ddyj/ddyj_xqsyjs/xq_zxcg/201902/t20190228_4839615.shtml)
- 王暉, 〈帝乙 帝辛卜辭斷代研究〉《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0期, 2003.
-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 北京, 世界圖書出版, 2000.
- 姚孝遂、肖丁 合著, 《小屯南地甲骨考釋》, 北京: 中華書局, 1985.
- 姚孝遂主編, 《殷墟甲骨刻辭類纂》, 北京: 中華書局, 1989.
- 姚孝遂主編,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 吉林: 吉林大學古籍研究所叢刊之五, 1988.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 朱鳳瀚, 《商周家族形態研究》,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4.
- 晁福林, 《說商代的‘天’和‘帝’》, 《史學集刊》, 2019, 02. 인터넷판, (中國社會科學院古代史研究所, http://lishisuo.cssn.cn/ddyj/ddyj_xqsyjs/xq_zxcg/201902/t20190228_4839592.shtml)
- 島邦男, 『殷墟卜辭研究』, 東京: 鼎文書局, 1975.
- 林巳奈夫, 「中國古代の神巫」, 『東方學報』, 第38期, 1967.

Abstract

The Structure of the Combined Text '王(wang)+賓(bin) +' in the Second Period of Shang Dynasty Oracle Bone Inscriptions and the Inside

-As part of the predecessor work for reliable cultural research for Shang Dynasty-

Kim, Kyungil

The purpose of following research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and cultural aspect implied in the combined texts of '王 + 賓 + ', a unique finding, from the second period of the Shang Dynasty. The analysis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exts '王 + 賓', which frequently appear in the second period of the Shang Dynasty in the cultural context of ancestral rites. The paper analyzes the elements of character 賓. 賓 consists of three elements: '宀', '人', '止'. '宀' represents a house where the ancestral rite takes place, '人' represents the ghost of the ancestor, '止' represents the King guiding the ghost for entrance. Also, the research examines the role of '賓' as a V1 verb by analyzing the order of the words. Lastly, the research emphasizes the characteristic of the object in the '王 + 賓 + ' structure and examination of another verb V2.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 confirms that the text "王 + 賓 V1 + O + V2" discovered in the second period of the Shang Dynasty is composed of unique objects particularly defined as the ghost of the ancestors. Furthermore, the research confirms there are five distinct ancestral rites used as rotating V2 verbs.

Key Words: Oracle Bone Inscriptions, '王(wang)+ 賓(bin)' + 'text, the second period of Shang Dynasty, the elements of 賓(bin), '王(wang)+ 賓(bin)' V1+O+V2' text

투고일: 2020. 4. 10. / 심사일: 2020. 4. 15.~ 2020. 5. 15. / 게재확정일: 2020. 5. 20.